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이창식¹, 유은경², 장하영^{3*}

¹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²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³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of Workers: Focusing on Hope and Growth Mindset

Chang-Seek Lee¹, Eun-Kyung Ryu², Ha-Young Jang^{3*}

¹Professor, Dept. of Health, Counse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²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Adolescent Counseling and Psychology, Hanseo University

³Doctor, Dep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서북부 2개의 시에서 직장인 3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 검정(T-test, ANOVA),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그리고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을 사원급과 대리급 이상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 및 자기주도적 학습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사원급인 경우 희망의 경로사고와 성장 마인드셋의 지능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쳤고 대리급 이상인 경우 희망의 경로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위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기주도적 학습, 희망, 성장 마인드셋, 직장인,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of workers. For this purpose, 335 workers were surveyed in two citie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difference test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y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Also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hope and growth mindset on self-directed learn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ng the group into employee-level and higher employee-lev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directed learning differed by gender. Secon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hope, growth mindset and self-directed learn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athway thinking of hope and the intelligence of the growth mindset influenced self-directed learning of employee-level workers. And it showed that the pathway thinking of hope influenced self-directed learning of higher employee-level workers. Finally, we discussed policies to enhance workers' self-directed learning based on positions.

Key Words : Self-directed learning, Hope, Growth mindset, Worke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a-Young Jang(besof@hanmail.net)

Received June 21,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July 27,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1. 서론

4차 혁명이라는 용어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1] 가장 큰 특성은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물과 인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생활에서 응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그 기술적 기반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들 수 있다[1]. 하지만 이러한 4차 혁명은 기술적 변화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4차 산업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사고 방식부터 정치, 경제, 환경 등 삶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고 주도하는 것은 개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거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의학 등 전 분야에서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 정책들은 내용적 면에서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비롯한 역량 교육을, 수동적 학습 태도보다는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4]. 따라서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적합한 학습 형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지닌 채,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나아가서는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추어 학습량을 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성인 학습자인 경우 10대의 학생에 비하여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물질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은 더욱 강조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희망, 성장 마인드셋 등의 심리적 변수와 인적 관계, 물리적 환경 등이 예측 변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7-12]. 이러한 변인들은 크게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희망, 성장 마인드셋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7-9], 환경적 특성으로는 가족, 교사, 교우 등의 인적 지원, 물리적 교육 환경 등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10-12]. 하지만 이러한 변수 중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던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였다[9]. 따라서 본 연구는 예측 변수로서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희망이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의미한다[13]. Snyder 등[14]은 이러한 희망을 경로와 주도가 상호작용하는 조직된 사고의 동기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희망은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로 나뉘어지는데[15]. 주도사고는 희망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고 경로사고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인지를 의미한다[15]. 이러한 희망은 사람이 매사에 도전적 태도를 보이게 하고, 실패보다 성공에 비중을 두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희망은 우울, 불안감, 공포, 강박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낮추어주고[16], 자기효능감, 자존감, 학업성취도 등의 긍정적 정서는 높여준다[17]. 또한 이창식 등[9]에 의하면 희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구조적 과정에서 희망이 성장 마인드셋과 Grit에 영향을 미쳐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본다면 희망은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직간접적으로 높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자기 기반 이론이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 간의 관계에서 주로 심리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지각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게 하는 해석 틀을 제공받게 된다[18].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Bandura 등[19]은 지능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로 하여 지능이 고정적이라는 실체론과 지능이 노력에 의해 향상된다는 증진론으로 마인드셋을 구분하였다. 이후 Dweck[20]은 실체론은 고정 마인드셋으로, 증진론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개념은 현재에도 관련 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의 마인드셋은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단일 영역일지라도 서로 배타성을 띄지 않고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중 대체로 한 가지 성향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21]. 한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에 대한 태도이다. 고정 마인드셋이 강할 경우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본인이 익숙한 분야만을 시도하게 된다. 그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닐 경우 실패 자체도 도전으로 여기며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시도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22].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도 차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성장 마인드셋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이 강한 학생들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 따라서 학업성취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상술한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의 한계는 우선 연구대상에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였다. 또한 학습 태도의 예측 변수로서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이 다루어졌던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하고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 논의 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직장에서의 직위에 따라 학습 의도, 자율적 학습 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위를 사원급과 대리 이상급으로 나누고 그들의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희망, 성장마인드셋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대하여 희망과 성장마인드셋의 영향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성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함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D시, S시에 근무하는 35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3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00명(89.6%), 여성이 35명(10.4%)로 남성이 많았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20세~5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6.02세(SD=7.993)이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188명(56.1%), 미혼이 147명(43.9%)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 직종은 영업직이 256명(7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무직 38명(11.3%), 관리직 37명(11.0%), 생산직 4명(1.2%) 순이었다. 이들의 지위는 사원급이 164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 81명(24.2%), 과장급 44명(13.1%), 차장급 28명(8.4%), 부장급 13명(3.9%), 임원급 5명(1.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졸 이상이 252명(75.2%), 전문대졸 이하가 83명(24.8%)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희망

희망척도는 Snyder 등[14]이 개발하였고 최윤희 등[2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척도는 희망을 개인적 특성이라고 보고 개인의 희망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써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경로사고 4문항, 주도사고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범위는 “분명히 아니다” 1점부터 “분명히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경로사고 .832로 나타났고, 주도사고 .803으로 나타났.

2.2.2 성장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어느 정도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Dweck[20]이 개발한 성장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능과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총 문항의 수는 8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지능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은 2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격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은 4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6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성장 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지능의 경우 .809로 나타났고, 성격의 경우 .774로 나타났다.

2.2.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 실행 및 평가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Guglielmino[26]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를 변안한 김지자·김성경의 척도[27]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자발적 계획과 관련된 하위 척도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자발적 계획과 관련된 문항은 총 6문항이며, 3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3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5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근무 직종, 지위, 학력을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Duncan/Dunnet T3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희망과 성장마인드셋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Table 1과 같으며,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유의하게 높았다($t=2.216, p<.05$). 그 외, 결혼유무($t=.480, p=.631$), 근무직종($F=2.680, p=.070$), 지위($F=.032, p=.968$) 및 학력($t=.445, p=.656$)에 따라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1. Self-directed learn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2>

		Self-directed learning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297	3.57(.55)	2.216**
	Female	35	3.35(.55)	
Marital Status	Married	186	3.56(.51)	.480
	Unmarried	146	3.53(.61)	
Working Jobs	Office Work	38	3.37(.57)	2.680
	Sales Office	253	3.55(.55)	
	Others	41	3.65(.54)	
Position	Employee grade	164	3.54(.62)	.032
	Superintendent	124	3.54(.51)	
	Assistan Manager	44	3.56(.41)	
Education	Under the College	83	3.57(.54)	.445
	4 years or More	249	3.54(.56)	

** $p<.01$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중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669, p<.01$)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r=.548, p<.01$), 성장마인드셋의 하위 변인인 지능과 자기주도적 학습($r=.476,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167 ~ .669로,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5.
Hope	1. Path	1				
	2. Agency	.669**	1			
Growth Mindset	3. Intelligence	.319**	.322**	1		
	4. Personality	.167**	.181**	.430**	1	
5. Self-directed learning		.548**	.476**	.358**	.223**	1
Mean		.30	2.16	2.89	3.70	3.27
SD		.46	.99	.53	.70	.57

** $P < .01$

3.3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1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별, 연령, 결혼 유무, 학력, 근무직종, 2단계에서는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3단계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의 하위 변인인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과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각각 투입하여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3.1 사원급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사원급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및 학력은 사원급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4.6% 설명하였고, 희망의 하위 변인

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전체 설명력을 26.5% 증가시켰으며, 성장마인드셋의 하위 변인인 지능과 성격은 3.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의 변수는 사원급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34.2% 설명하며, 8개의 변수 중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와 성장마인드셋의 하위 변인인 지능이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외의 변수는 영향력이 없었다. 즉, 희망의 경로사고가 높을수록, 성장마인드셋의 지능이 높을수록 사원급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2 대리급 이상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대리급 이상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및 학력은 대리급 이상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4.4% 설명하였고,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전체 설명력을 35% 증가시켰으며, 성장마인드셋의 하위 변인인 지능과 성격은 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의 변수는 대리급 이상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42.4% 설명하며, 8개의 변수 중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만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외의 변수는 영향력이 없었다. 즉, 희망의 경로사고가 높을수록 사원급 이상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of employee

<N=164>

	Self-directed learning of employee		
	B (β)	B (β)	B (β)
Step 1 :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1=Male)	-.259 (-.162)	-.020 (-.012)	-.035 (-.022)
Age	.012 (.155)	.010 (.135)	.011 (.139)
Marrital Status(1=Married)	.206 (.155)	.219 (.164)	.210 (.158)
Education(1=Under the College)	-.053 (-.080)	-.072 (-.109)	-.051 (-.076)
Step 2 : Hope			
Path Thinking		.342 (.371)***	.300 (.326)***
Agency Thinking		.213 (.220)*	.172 (.178)
Step 3 : Growth Mindset			
Intelligence			.150 (.181)*
Personality			.024 (.029)
F	1.897	11.800***	10.077***
ΔR ²	.046	.265	.031
R ²	.046	.311	.342

* $p < .05$ *** $p <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of senior employee or higher

<N=168>

	Self-directed learning of senior employee or higher		
	B (β)	B (β)	B (β)
Step 1 :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1=Male)	-.312 (-.109)	-.135 (-.047)	-.123 (-.043)
Age	-.013 (-.161)	-.005 (-.065)	-.007 (-.082)
Marital Status(1=Married)	-.201 (-.165)*	-.077 (-.064)	-.088 (-.072)
Education(1=Under the College)	-.056 (-.088)	-.044 (-.069)	-.023 (-.036)
Step 2 : Hope			
Path Thinking		.372 (.453)***	.349 (.424)***
Agency Thinking		.167 (.197)*	.133 (.157)
Step 3 : Growth Mindset			
Intelligence			.077 (.115)
Personality			.071 (.104)
F	1.889	17.455***	14.650***
ΔR ²	.044	.350	.030
R ²	.044	.394	.424

* $p < .05$,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결과변수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며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차이를 보였으나 결혼 상태, 근무 직종, 직위,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일부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7-12].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과거에는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로 이해되었다[28]. 그러나 근래에는 학습자 환경과 주변의 기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와 동기 및 자기조절감을 포함한 학습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차이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29]. 따라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성별 자체에 따른 영향력이 아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개인적 변수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 이외의 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모두 흔해지고 있으며 기존에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들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과 상관성이 높은 예측 변인으로 정미경[30]은 자기조절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감은 10대의 경우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나 직장인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지닌 환경과 자기조절감을 비롯한 심리적 변수들은 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서는 평생학습 기관인 도서관, 관공서, 지역 복지관 및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 및 자기주도 학습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직접적으로 일치하고 있다[9,17,23]. 따라서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높이기 위하여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의 결과 변수로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9,23]. 학습자들은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학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학습에 더욱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비록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관한 결과였으나 성인 학습자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이 심리적 변수로서의 학습 동기와 매우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학습 동기를 향상시켜줄 방안이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긍정심, 학습에 대한 주도성, 외재적 변인으로서의 적절한 보상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희망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중 경로사고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학습자들이 도전 자체로서의 노력보다는 성취 달성의 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성인들은 단순히 배움의 목적보다도 이를 적용 및 응용할 실용적 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31].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거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하겠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위가 사원인 경우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대리급 이상인 경우 성장 마인드셋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집단이 학습에 대한 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32], 그 이유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습자의 개인 목표 성취 의식과 사회적 교류와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이다[33].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가 속한 조직 내 직위에 따라 접근 방식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지역 일부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일반적 원리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후에는 표집을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비교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수로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만 다루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변수를 적용하였던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를 적용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기존의 연구에서 영향력이 밝혀졌던 변수들과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적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따라서 직장 내 직위에 따라 희망과 성장 마인드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Y. J. Im. (2018). *A Study on inhibition factors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Master's dissertation. Sungkonghwei University, Seoul.
- [2] H. W. Kim. (2018). *Developing the curriculum of Music University in an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3] K. Yeung & J. S. Woo. (2017). How is the UK Responding to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0(2)*, 122-139.
- [4] E. K. Yang & H. J. Cho. (2009).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up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Educational Forum, 8(3)*, 61-82.
- [5] M. Knowles. (1975). *Self-direction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 NY : Association Press.
- [6] I. S. Song. (2006). *Self-direction learning*. Seoul : Hakjisa.
- [7] Y. K. Kim & H. S. Lee. (2011). Learning Persistence Factors of Self-directed Continuing Adult learners i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7(4)*, 171-204.
- [8] S. S. Song & P. H. Kim. (2013).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Behaviors, Self-Efficacy, Goal Orien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8th.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2(2)*, 103-119.
- [9] C. S. Lee & H. Y. Jang. (2018). The roles of growth mindset and grit in relation to hope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95-102.
DOI : 10.15207/JKCS.2018.9.1.095
- [10] J. Y. Park. (2004).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42(2)*, 247-269.
- [11] W. H. Ahn. (2010). Effects of Students' Family Background on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n Educational Forum, 9(3)*, 1-18.
- [12] K. S. Kim & H. C. Lee. (2009).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Learning Attitude. *Journal of Secondary Education, 57(2)*, 181-207.
- [13] C. R. Snyde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 Free Press.
- [14] C. R. Snyder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15] C. R. Snyder, D. B. Feldman, H. S. Shorey & K. L. Rand. (2002). Hopeful choice: A school counselor's guide to hope therap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298-307.
- [16] M. Y. Hyun, J. E. Lee & S. N. Park. (2003). A Study on the Adolescents' Hop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2), 116-123.
- [17] C. R. Syder, J. Cheavens & S. C. Sympson. (1997).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2), 107-118. DOI : 10.1037/1089-2699.1.2.107
- [18] D. C. Molden & C. S. Dweck.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3), 192-203.
- [19] S. K. Lee. (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Fixed Mindset and Grit of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0] C. S. Dweck.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Y : Random House.
- [21] C. S. Dweck, C. Chiu & Y. Hong.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4), 267-285.
- [22] J. S. Hyun & C. J. Park. (2013). Learning Effects of Divide-and-Combine Principles and State Models on Contradiction Problem Solving and Growth Mindset. *Knowledge Management Review*, 14(4), 19-46. DOI : 10.15813/kmr.2013.14.4.002
- [23] S. J. Lee & T. S. Shin. (2018). The Effects of Mindsets on Academic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ed by Grit :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Whether the Students Gave Up on Mathematics or No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1), 59-87.
- [24] N. Y. Yang & S. Y. Moon.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4), 473-480.
- [25] Y. H. Choi, D. G. Lee & H. K. Lee. (20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Dispositional Hope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2), 1-16.
- [26] L. M. Guglielmino.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Georgia.
- [27] J. J. Kim & K. S. Kim. (1996). Development of Self-Directed Readiness Measurement Too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1), 1-23.
- [28] H. K. Lee & T. S. Han. (1995).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al Ability.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5(2), 143-154.
- [29] J. C. Kim. (200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interest, reading amount, cognitive strategy, academic confidence and reading literacy in terms of gender and learning sty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93-114.
- [30] M. K. Jung. (2003).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41(4), 157-182.
- [31] S. N. Shon. (2015). Role and Reform Agendas of University as Community Lifelong Learning Institut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3), 71-96.
- [32] A. J. Ham. (2017). *The Effect of Subjective Age Perception level of Learners Attending Elderly Welfare Centers on The Motivation of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33] M. M. Jung. (2012).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ocial dance program by Self-Perceived and life style of elderly wome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1(6), 429-452.

이 창 식(Lee, Chang See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유 은 경(Ryu, Eun Kyung)

[정회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교 컴퓨터공학(이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상담, 심리, 인권
- E-Mail : yek0444@hanmail.net

장 하 영(Jang, Ha Young)

[정회원]



- 2018년 8월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평생교육학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